전남도 주력산업 체계적 육성 방안 만든다

"협력산업 등 판로·R&D 예산 부족…기업 지원 통합플랫폼 필요"

"기업에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면 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연관 제품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지방 R&D 예산이 감소하면서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 지방R&D 예산 확보에 주력했으면 한다."

"R&D 사업 등 가지 수가 많아 중복 지원 문제 등이 나온다. 또 기업 지원에 다른 성장 이력을 관리하는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이 절실하다."

에너지신산업 등 지역 주력·협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전남 기업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전남지역 주력·협력권 산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역 산업계와 추진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도청에서 보고회를 가졌다. 주력·협력산업은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과 지역이 협의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 청색·청정산업 등 4개 특화산업과 첨단신소재부품, 스마트친환경 등 2개 협력권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들 6개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R&D)과 기업지원(비R&D) 사업으로 올 한 해 동안 87개 과제에 260억 원을 투입했다.

회의 결과, 기업들은 지원받는 기술 개발이나 기업 지원 사업들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사업 추진 절차상 사업 수행 기간 부족, 사업화 이후 판로 부족, R&D 부족 등에 애로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앞으로 사업 수행 기간 확대를 위한 절차 개선,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지방 R&D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및 체계적 기업 성과 관리를 위해 '전남 기업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전남테크노파크와 사업을 관리·평가하는 전남지역사업평가단도 함께 참석해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정책 변화와 2019년 주요 추진 방향, 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김신남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이번 보고회는 산업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지방 R&D를 확대하고, 기업 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산업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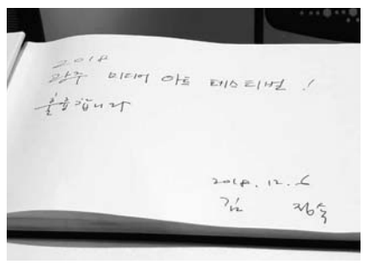
김정숙 여사, 아들 작품 보러 깜짝 광주행

어제 오후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관람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8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에 김정숙 여사가 깜짝 방문했다. 아들 준용씨가 출품한 작품을 관람하기 위해서다.

6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0분께 김정숙 여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2018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찾아 전시된 작품들을 둘러본 뒤 돌아갔다. 김 여사는 경호원들과 함께 비공식적으로 전시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특히, 전시장 1층에 전시돼 있는 아들 문준용씨의 미디어 작품을 관람했다. 미디어아트 작가 문씨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가상현실을 시적인 감수성으로 풀어낸 '확장된 그림자'를 이번 미디어아트페스티벌에 선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문씨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열린 미디어아트 전시회에도 작품을 출품했다.

김 여사는 이어 문화전당 2층으로 이동해 1시간여동안 '알고리즘 소사이어티 기계-신의 탄생'을 주제로 출품된 7개국, 8개 도시, 61명 작가의 작품 37점을 모두 관람한 뒤 돌아갔다.



김 여사는 작품 관람에 앞서 방명록〈사진〉에 '2018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훌륭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 여사의 깜짝 방문을 알게 된 이용섭 광주시장은 뒤늦게 전시장에 도착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아들 문씨는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김 여사가 사전 연락도 없이 깜짝 방문해 많이 놀랐다"며 "미디어아트에 관심을 보여주어 고맙게 생각한다. 이번 방문으로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이 더욱 빛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국도 연장 지정·지방도 확대"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건의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이 '국도 연장 지정과 국가지원 지방도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6일 강원도 원주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어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이 상정한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 건의'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국가와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라며 "광역도별로 시급한 도로에 대해 국도 연장 지정과 승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6일 강원도 원주에서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 재난 복구 특별교부세 98억 확보

예비비 바닥 완도·고흥·보성 등 '숨통'

전남도는 집중호우와 태풍 '솔릭'·'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8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자연재난으로 긴급 복구가 필요하지만 예비비가 바닥난 전남 일선 시군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복구사업들이 내년 우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군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도·고흥·보성 지역에 투입돼 주민생활 불편시설을 복구하는 데 우선 사용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재난복구의 경우 전액 시·군비를 투입해야 해 기초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됐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에 이를 건의하고, 도에서 선제적으로 61억원을 투입하면서 이번 교부세 지원을 끌어냈다.

전남지역은 올해 3차례 자연재난으로 20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복구비로는 731억원이 산정됐다. 이 중 도비 140억원, 시·군비 240억원 등 총 380억원의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지만 연이은 자연재난으로 시군 예비비가 바닥나 어려움이 예상됐다. 특히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시군 예비비가 소진되다 보니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예비비 61억원을 7개 시군에 선제적으로 투입했고 관련 규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소규모어항 및 농로 등 시설에도 국비가 5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16개 시도지사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도 김영록 전남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며 협조를 구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금강산~두만강 800㎞ 철도 조사단 내일 방북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남측 조사단이 경의선에 이어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8일 오전 방북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동해선 조사단이) 8일 오전 4시경에 서울을 출발한다"며 "(북측으로의) 출경은 오전 9시경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별도의 환송행사는 열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동해선 조사단은 북측 인사들과 함께 이달 8~17일 열흘간 금강산~두만강 800㎞ 구간을 이동하며 철로와 시설 상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동해선 조사 때는 단원들의 피로도 등을 감안,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경의선 조사단에서 3분의 2 정도의 인원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업의 일관성, 지속성 측면에서는 (인원을) 유지를 하되 대체가 가능한 인력들은 교체를 해 드리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동해선 조사단원들은 8일 버스를 이용해 북측으로 향한다. 이들은 버스로 금강산역에서 안변역까지 철도 구간을 살펴본 뒤 안변역부터는 열차에 탑승할 계획이다. 일부 구간을 버스로 이동하는 것은 북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철로 사정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NN "북 영저동 미사일 기지 계속 가동"

북한이 '영저동'(Yeongjeo-dong) 미사일 기지를 계속 가동하고 있으며 인근에 신규 시설을 건설하는 등 기존 기지를 주변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자체 입수한 위성사진을 인용, "북한이 영저동 미사일 기지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인근 시설을 계속 가동 중이며, 이들 기지와 시설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새로 입수한 위성사진들은 북한이 산간 지역에 있는 핵심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상당히 확장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미 간 '외교적 대화'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탄두 대량 생산 및 배치 추구를 막는데는 별 실효가 없다는 걸 재차 환기해 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위성사진은 북한이 지난해 매우 큰 규모의 지하 시설을 건설하고 있었으며, 이 시설이 올해 8월 현재 여전히 건설 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CNN은 설명했다.

CNN이 언급한 '영저동' 기지는 '영저리' 기지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양강도 영저리 미사일 기지는 1999년대 말 국내 및 미국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다. 1999년 10월 한국 군 당국은 영저리, 황해북도 삭간몰 등 6곳에서 스커드미사일 기지 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매비법전수
· NPL과 특수물건만 교육
· 임장비등 교육비 1200만원
· 배우면서 투자가능 !
(주)오천경매.010-3605-5000

토지
※임야/단독섬/지분환영※
바로삽니다.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10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 12월 21일(금)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봄.
임대 공장 소유주는 자본없이도
자기소유공장 만들어 드림!
2018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11월 20일(화) ~ 2018년 12월 28일(금)
• 교육기간 : 2018년 12월 21일(금) ~ 2019년 2월 15일(금)
매주 금요일 주간 15:00~17: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12만원(예금주 :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상담지도교수 H. 010-9416-1200 T. 062)230-7700

광주광역시 인구보건복지협회 | 광주전남지회
함께하면 '든든'육아 성공비법
직장눈치문화 제로법
슈퍼맘 방지법
육아훈수 주의법
육아대디 지지법
든든육아 동참법
직장 가족 이웃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불균형개선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가 함께 합니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음 1130㎡ 1억2천
• 영암군 신북면 월지리 감나무밭 746㎡ 전원생활용 4천만원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728㎡ 전원주택·주말농장 적합 1억7천
• 완도 약산면 바다인접 주택 대지 607㎡ 주택 70㎡ 9200만원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남평읍 노동리 땅 6608㎡ 대형 기와집·사찰 적합 8억7천
•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땅 3044㎡ 도로있음 투자에 양호 3억4천
• 남평읍 상곡리 땅 6608㎡ 주택있음 전원생활 최적 1억5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4861㎡ 창고·가든·매장 등 적합 6억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사찰·빌라·다세대 적합 1억5백
• 무안 해제면 소재지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매도 1억
• 광산구 송정동 상업지 311㎡ 주택있음 은행 9600 매도 3억
• 장성 삼계면 주산리 상업지 432㎡ 장기투자에 적합 5200만원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답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소태동 대지 261㎡ 주택 78㎡ 조용한 생활 적합 1억8천
• 광산구 대산동 잡종지 등 1554㎡ 창고 등 다용도적합 3억7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접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옥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평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동구 서석동 대지 404㎡ 5층건물 919㎡ 9천에 월300수익 10억2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접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특급물건
• 팬션 순천만 대대동 땅 332㎡ 룸 8개와 관리실 은행 3억 영업잘됨 3억천
• 아파트 부지 담양 고서면 63530㎡ 평당 70(130억)
• 완도읍 새모텔 땅 959㎡ 45실 2393㎡ 은행 17억 감정가이하 23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